

건설협회 '비전 2030' 선포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민 위한 산업으로 거듭날 것”

3대 부문별 목표 제시 건설정책 대응력 강화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건설기업의 성공적인 변화를 돕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건설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비전을 선포했다.

건협은 31일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제2회 임시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전 2030'을 발표했다.

비전 2030은 '건설산업 70년, 건설협회 70주년'을 맞아 건설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협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협회 중장기 발전계획이다.

비전 2030은 '국민을 이롭게, 건설산업을 활력있게, 미래를 여는 대한건설협회'를 미래 비전으로 삼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한건설협회는 31일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제2회 임시총회를 열고 '비전 2030'을 선포했다. 사진은 총회 후 기념촬영 모습.

건설기업이 성공적인 변화로 국민을 위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정책기능, 조직운영, 서비스 기능 등 3대 부문별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선도적 건설정책 대응력 강화, 건설산업 리더로서의 위상제고, 미래 지향적 조직체계 정비 등 10대 세부 전략을 담고 있다.

유주현 건협 회장은 “건설산업의 지난 70년사는 시련과 극복의 연속이었고, 우리 건설인들의 뜨거운 땀과 노력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건설해왔다”며 “SOC 예산 감축 등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번 미래비전 선포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건설산업의 미래를 힘차게 준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협회 자문위원장으로 오랜기간 활동하면서 선후배 건설인들의 귀감이 돼 온 박재운 강산건설 대표(전 기획위원장)와 이계원 다원건설 대표(전 중소위원장), 김종구 신동아종합건설 대표(전 윤리위원장) 등 3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 밖에도 2016년 결산 승인, 2017년 추경 예산 결정 등의 안건이 통과됐다.

김태형기자 kth@